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김정현(Kim, Jung-Hyun) · 최현자(Choe, Hyuncha)

본 연구는 복잡해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측정 척도를 이용하여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와 역량 총점의 개략적 모습을 살펴보고, 개인의 특성, 재무적 특성,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점수를 분석하였다.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45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14점을 나타내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인별로는 지식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역량 점수가 가장 낮아 실천적 역량의 부족이 입증되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영역의 역량 점수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및 위험관리에 관련된 역량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태도나 지식 등 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서울 외 수도권과 중소도시/읍면부 거주자가 더 우수한 점수를 나타낸 반면, 기능역량은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재무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고찰한 결과,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투자를 많이 할수록,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태도, 지식, 기능역량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많을수록, 소득 및 생활비 대비 금융자산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역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투자성향지표와 유동성지표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기능역량이 우수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도 점수에 따라 재무관리역량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특성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재무관리역량 수준도 더 우수하였다.

다섯째,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을 살펴본 결과들로부터,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에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구성요인은 기능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천적 역량에 초점을 둔 금융교육 및 정책의 고안, 재무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강조, 기능역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원 및 인프라에의 접근성 확보, 재무적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무관리역량 증진 필요성, 체계적으로 재무관리의 실천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정책의 고안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개인적 특성, 재무적 특성, 주관적 만족도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김정현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대우연구교수(teddyppo@naver.com), 주저자

최현자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hychoe@snu.ac.kr), 교신저자

1. 서론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이며 나아가 시장경제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더욱이 오늘날 시장의 국제화 및 기업的高도화된 마케팅 전략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거래활동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역할이 과거의 단순 상품 교환에서부터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및 보이지 않는 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판매방법이 등장함으로 인해 거래환경이 진화하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소비자 역량이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 개인의 역량은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의 기본이 된다. OECD는 1997년부터 수행된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을 특정 분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삶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역량의 문제가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즉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개인적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내면적 능력인 역량은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소로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소비자학에서도 소비자 역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비자와 가계의 가장 근원적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재무관리영역에 있어서 소비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더욱 더 복잡다변화 되었다. 소득관

리와 지출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재무관리 영역이 위험관리, 신용관리, 투자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 의사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특히 길지 않은 시간차를 두고 외환위기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변한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한 경제시스템 하에서의 소비자 재무관리와는 현격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재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의 능력, 즉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이 절실히해진 것이다.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환경 하에서 자주적인 의사결정 및 올바른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 재무관리역량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재무관리역량을 키워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하여금 건강한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미비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소비자 재무관리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어 왔고(Titus et al. 1989; 김연정, 김순미 1991; 임정빈 외 1998 등) 소비자의 재무복지와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재무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잘 모르는지, 또 어떤 영역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대와 태도가 행동을 바꾼다는 심리학의 상식에서처럼 소비자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내면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재무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면적 요소로서의 영역인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고무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 중 하나로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이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무관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어 왔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탐색적인 연구로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현, 최현자(2011)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무관리역량이 소비자의 재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 재무관리역량 증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그 개념과 세부요소를 규정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연구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확하게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먼저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역량'의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영학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직무분석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온 역량의 개념들을 참고로 하였고, OECD에서 정의한 역량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역량에 대해 논의한 소비자 능력 및 소비자 역량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규정한 후에는 그 개념에 근거하여 개념적 모델을 도출하였고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또 하위영역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2.1 역량 및 소비자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이란 본래 직업훈련이나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이나, 최근 들어 역량이라는 것이 소비자학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생활에 관심을 갖는 학문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OECD(2003)가 역량의 개념을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삶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소비자학으로 하여금 역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다.

김정현(2011)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정의되어 온 역량의 개념과 소비자학에서 논의되어 온 소비자 능력 및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규명하였다.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던 역량의 개념에서 출발하여(McClelland 1993; Spencer and Spencer 1993; Mirabile 1997),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역량의 개념(OECD 2003) 및 소비자학에서 논의되어 온 유사 개념인 소비자 능력의 개념(공정거래위원회 2008; California Adult Competency Survey; 이기춘 1999)을 종합하여 소비자 역량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역량이란 "삶의 어떤 맥락에 있어서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개인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내적요인도 포함하는 것”(p.16)으로 정리되었으며, 소비자 역량이란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태도, 지식, 기능의 총체”(p.20)라고 규정되었다.

2.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¹⁾

김정현(2011)은 전술한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토대로 하면서 재무관리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FSA 2005)를 추가로 고찰함으로써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앞서 정의한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준용하여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정의하자면, 넓은 의미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 즉 재무환경 혹은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이란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SA(2005)에 의하면, 소비자의 재무관리

역량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술, 재무관리태도가 결합되어 재무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형편, 개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보다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앞서 마련된 소비자 역량 개념으로부터 유추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태도, 지식, 기술(혹은 기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경제환경 혹은 금융환경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종합하여 김정현(2011)에서 제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금융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소비자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 결합되어 건전한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p.24)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개념에 맞추어 개념적 모델을 그려보고 이후의 작업인 재무관리역량 구성요인과 하위영역의 규명, 내용요소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척도가 개발되었다.

2.3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및 하위영역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내용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역량을 보다 작은 영역들로 분류한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하였는데, 여기에서 도입된 개념은 “구성요인(component)” 및 “하위영역(subcategory)”이다.

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 규정, 구성요인과 하위영역 도출에 이르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정현(2011)을 참조.

2.3.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구성요인(component)이란 재무관리역량이라는 특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의미로서, 위에서 도출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에 의하면 개인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은 재무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며, 이들 3가지는 재무관리역량이 발현되는 지표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개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준비된 마음가짐 내지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는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기춘 1985)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태도적 요인은 궁극적인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촉진체가 된다. 태도와 행동 간 관계에 관해서는 소비자학, 경영학, 광고학 및 교육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태도와 행동 간 긴밀한 연관성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론이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는 개인의 특정 행위는 의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실현되고 의지는 태도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개인이 지각한 상황 통제력이 태도와 함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소비자의 지식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사실, 개념 등을 의미하고 소비자 행동의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서은숙, 장윤옥 2008).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지는 것으로서 특정 행위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면서 인출되는 정보라 볼 수 있는데, 기억에서 소비자의 저장된 지식이 정보탐색과 정보처리의 인지적 과정에 강한 영

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Bettman 1979). 지식과 행동 간 관계에 관한 지식결핍모델(Knowledge Deficit Model)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의 수준은 행동의 의도를 결정한다고 한다(Schultz 2002). 즉 소비자의 지식의 증가가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재무관리에 관련된 지식의 증가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기능은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능력의 하부영역으로,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응용적, 실천적 영역을 뜻한다(김경자, 이기춘 1986). 따라서 이러한 실천적 요인으로서의 소비자 기능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으로부터, 또 선행연구들의 뒷받침으로부터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은 소비자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

특정 개념에 대한 하위영역(subcategory)이란 해당 개념이 하나의 큰 개념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하부에 존재하는 내용적으로 부수적인 영역들을 일컫는다.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을 규명하기 위하여 김정현(2011)에서는 소비자 재무관리 및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주제영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재무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을 정리하고 소비자 대상의 재무관리교육의 내용체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의 분류(FSA 2005; 공정거래위원회 2008; Parrotta and Johnson 1998; JumpStart 2007; 최현자 외 2003)를 종합하고 재분류하여 [수입과 지출의 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금융시장

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이라는 6개의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2.4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에 관련된 변수들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은 물론이고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탐색적인 수준으로 관련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구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2008) 및 배순영, 천현진(2011) 등이 있으며, 녹색소비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손상희 외 2010; 송순영 2010; 이선영, 정순희 2009). 공정거래위원회(2008)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자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소비자 특성 집단별 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소비자 역량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배순영, 천현진(2011)은 소비자 역량을 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그 중 금융역량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 소비자 역량은 거주지와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혼인여부, 직업,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30대이면서, 기혼이고, 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소득 500만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소비자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역량에 대한 분석에서도 역시 거주지와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가진 여러 특성들과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또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을 파악한 후 그것이 소비자 특성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2-1: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2-2: 소비자의 재무적 특성(단순지표, 재무비율)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2-3: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도(생활수준 만족도, 재정상태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3.2 연구방법

3.2.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정현, 최현자(2011)에서 개발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현, 최현자(2011)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정의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내용요소를 추출한 다음 전문가 집단 조사인 델파이법을 통해 내용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선정된 내용요소에 대응되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서베이 데이터를 확보하여 Nunnally(1978)의 측정타당화 과정을 통한 문항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관리태도 22문항, 재무관리지식 44문항, 재무관리기능 40문항의 총 106개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가 완성되었다. <표 1>은 개발된 척도

〈표 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의 대표 문항들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수입과 지출의 관리	a3. 비교구매와 계획적 지출습관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a5.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윤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g2.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실질소득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x) g5. 지출계획을 세울 때, 선택적 지출보다는 필수적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o) g8. 예산을 세울 때, 대출받을 돈도 수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x)	m4. 나는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m6. 나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해 비상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m8. 나는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수와 납부시기를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신용과 부채 관리	b4. 신용도가 낮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 b8.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자가 되더라도, 결국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h4.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은 더 많이 든다. (o) h7.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x) h11. 연체가 잦아도 소액이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는다. (x)	n1. 신용을 사용할 때 이자율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신용사용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n5. 부채의 원리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간이 12개월 이라면,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n10.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저축과 투자	c1.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어 느껴진다. (-) c5. 지금 돈을 아껴서 불리는 것보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나에게서 더 기분 좋은 일이다. (-)	i3. ①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것과, ②매월 100만원씩 5년을 저축하는 것, 이 중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경우는 ②이다. (x) i5.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장기 금융상품 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o) i11. 적립식펀드투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비해 위험분산효과가 크다. (o)	o5. 금리나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될 때, 발빠르게 대처하여 내 재산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o8. 나의 투자 목표(예, 단기여유자금운용 자녀교육자금마련)에 맞는 투자상품(예, CMA-적립식펀드)을 선택할 수 있다. o9. 투자안을 선택할 때,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할 수 있다.
위험관리와 보험	d2.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d3.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	j1. 주식이나 부동산 등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보험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x) j5.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금은 실적배당이다. (o)	p2. 지금 당장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자동차보유자의 경우), 연금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면,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p4. 보험상품에 관련된 리플렛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 정보를 어려움 없이 탐색할 수 있다. p5. 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범위와 한도, 효력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노후설계	e1. 나는 아직은 은퇴기를 대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지 않다. (-) e2.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k1. 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포트폴리오나 목표액수 등을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k4. 은퇴자금투자는 많은 액수보다는 장기간 불입이 더 효과적이다. (o) k5.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므로 개인적으로 연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x)	q2. 나는 은퇴대비자금으로, 저축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각종 연금 형태의 재원이 다양하게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수 있다. q3. 나는 나의 은퇴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q5. 노후에 내 재산을 분배할 증여/상속 계획이 이미 되어 있거나, 관련 계획을 개략적으로나마 스스로 세울 수 있다.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 사절정	f2. 나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f5.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 재정상태가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것은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도움이 된다.	l1.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다소 위험하더라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일반은행보다는 저축은행으로 가는 것이 낫다. (o) l5. 가구주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무목표가 달라지므로 재무설계안 또한 달라진다. (o) l7.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저축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재무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x)	r1. 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금의 목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별할 수 있다. r4. 시기에 따라 적합한 재무목표(예: 주택마련,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를 설정할 수 있다. r7.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변동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의 대표 문항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3.2.2 분석자료의 수집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대규모 온라인 서베이가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이외에도 인구통계적 정보와 재무적 특성 정보,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소비자로서 모집단(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 소비자)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자료는 2010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에 걸쳐 조사전문기관인 INR plus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되었으며, 1,045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3.2.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준이며 각 하위영역 및 구성요인별 점수는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내용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는 소비자의 개인적 및 재무적 특성,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 수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 및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 및 사후검증법이 이용되었다.

IV.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를 보면, 조사대상자 분포는 여자가 남자

보다 약간 더 많고,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거주지역별 분포도 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는 모집단에 비해 50대 이상의 비율이 적은 편이며 학력 분포 상으로도 고학력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 수집이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50대 이상 응답자 중에는 50대가 91명, 60대가 8명을 차지하여, 사실상 50대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가구원 수를 보면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3.43명으로 우리나라 전 가계의 평균 가구원 수와 거의 일치하였다.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다수를 이루면서 주부를 비롯한 무직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으며, 주거점유형태는 모집단의 비율(통계청 가계조사 2009; <http://kosis.kr/>)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자들은 소득이나 지출 및 부채에 관련된 질문에 비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다소 높은 결측율을 보였다. 월소득 평균은 368만원 선으로 우리나라 전국 1인 이상 가계의 평균 월소득인 310만원(201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 비할 때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월생활비는 전국 자료의 1인 이상 가계의 소비지출액수인 192만원에 비교적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의 분포상 고학력자와 젊은 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 가계수지는 평균값, 중위수, 최빈값 등이 모두 0.5 선으로,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 중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저축이나 투자에 유입되는 액수는 평균 109만원, 금융자산의 평균은 1억 3천만원 정도로서 모집단의 금융자산 평균인 5,744만원(2006년 가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N=1,045)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	507 (48.52)	거주지역	서울시	369 (35.31)
	여	538 (51.48)		서울외수도권	196 (18.76)
결혼상태	기혼	564 (53.97)		광역시	282 (26.99)
	미혼	481 (46.03)		중소도시	148 (14.16)
연령	20대	332 (31.77)		읍/면부	50 (4.78)
	30대	344 (32.9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9 (16.17)
	40대	270 (25.84)		전문대졸이하	193 (18.47)
	50대 이상	99 (9.47)		대졸 이하	567 (54.26)
	평균	35.25		대학원이상	116 (11.10)
(표준편차)	(9.4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417 (39.90)	주거점유 형태	자가	598 (57.22)
	가구주의 배우자	230 (22.01)		전세	254 (24.31)
	가구주의 자녀	392 (37.51)		월세	88 (8.42)
	가구주의 부모	6 (0.57)		무상거주	105 (10.05)
직업	봉급생활자	649 (66.41)	가구원 수	1명	90 (8.61)
	자영업자	96 (9.19)		2명	113 (10.81)
	대학/대학원생	96 (9.19)		3명	287 (27.46)
	무직(주부포함)	150 (14.35)		4명	403 (38.56)
	기타	9 (0.86)		5명 이상	152 (14.55)
	평균	3.43		평균	3.43
(표준편차)	(1.20)	(표준편차)	(1.20)		

계자산조사: <http://kosis.kr/>)에 비해 훨씬 많고 이를 물가상승률(연 3% 가정)을 반영하여 2010년의 수준으로 환산해 보아도 본 조사대상자들의 금융자산 액수가 모집단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평균 부동산 액수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값과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현상도 역시 노년층의 비율이 적은 본 조사대상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채총액의 평균은 3,229만원으로서 가계자산조사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월부채상환액 평균은 33만원 정도였다. 월소득 중 월부채상환액으로 계산된

단기부채부담의 평균은 0.09로서 최현자(1996)의 평균 부채부담인 0.10과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영애, 양세정(1995)의 0.13보다는 적었는데, 이는 성영애, 양세정(1995)의 경우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이다.

4.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실태

본 절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수치를 검토

〈표 3〉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

(단위: 명/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유효	결측					
월소득	1,018	27	368.23 (177.86)	330	300	100	1,500
월생활비	1,018	27	178.41 (106.56)	150	100	5	600
가계수지*	1,018	27	0.49 (0.22)	0.50	0.50	0.02	1.00
월 저축 투자	1,018	27	109.43 (98.18)	100	100	0	1,000
금융자산	965	80	13,181.42 (24,474.72)	7,500	10,000	0	305,000
부동산	793	252	25,724.32 (33,491.86)	17,000	0	0	500,000
부채총액	1,045	0	3,229.22 (6,870.71)	0	0	0	70,000
월 부채상환액	1,045	0	33.43 (71.57)	0	0	0	1,000
단기부채부담**	1,039	6	0.09 (0.21)	0	0	0.00	3.00

* 가계수지 = 월평균생활비/월평균소득

** 단기부채부담 =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

하였는데, 하나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원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된 점수이다. 태도 문항과 기능 문항은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지만 지식 문항은 O/X로 측정되어 응답의 범주가 상이하고 하위영역별로 구성 문항의 수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역량 점수를 비교할 때 원점수를 기준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각 영역별 점수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로 표준화된 점수가 필요하다.

4.2.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점수의 전체적 분포
〈표 4〉는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원점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재무관리태도는 22개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관리태도 점수는 22점~11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재무관리태도의 평균 점수는 77.21점이고 중위수도 이와 유사하였다. 재무관리지식은 44개의 O/X 척도(오답:0점~정답:1점)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의 범위는 0점~44점 사이이다. 재무관리지식의 평균 점수는 30.32점이고 중위수는 31점으로 유사하다. 재무관리기능은 재무관리태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 문항 40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점수는 40점~200점 범위이다. 재무관리기능의 평균 점수는 132.62점이고 중위수는 131점이다. 여기에서의 총점은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범위는 62점~354점이며 평균 250.15점, 중위수 237점, 최소값은

〈표 4〉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 원점수

기술통계량 구성요인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	
					1st	3rd
재무관리태도 (22점~110점)	77.21 (10.65)	77.00	48.00	107.00	68.00	85.00
재무관리지식 (0점~44점)	30.32 (6.55)	31.00	15.00	44.00	25.00	36.00
재무관리기능 (40점~200점)	132.62 (21.82)	131.00	52.00	198.00	121.00	147.00
재무관리역량 총점 (62점~354점)	240.15 (28.68)	237.00	158.00	338.00	219.00	258.00

158점이고 최대값은 338점에 이른다.

이들 점수는 공통적으로 평균과 중위수가 서로 비슷하고, 최소값, 최대값 및 사분위수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점수만으로는 그 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거나 구성요인들을 상호 간에 비교해 보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점수를 0점~100점 사이에 분포하는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시켜 역량 점수의 수준을 파악하고 상호 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백분위로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식(1)과 같으며, 이후에 제시되는 〈표 5〉와 〈표 6〉은 백분위 점수로 산출된 결과물이다.

$$\text{백분위 표준점수} = \frac{(100 * (\text{관측값} - \text{최저점}))}{(\text{최고점} - \text{최저점})}$$

..... 식(1)

〈표 5〉를 보면, 재무관리역량 각 구성요인들의 평균값은 모두 50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1사분위의 점수도 모두 50점보다 높다. 구성요인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지식 점수가 가장 높고 태

〈표 5〉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점수 : 백분위 점수

기술통계량 구성요인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사분위수	
					1st	3rd
재무관리태도 (0점~100점)	62.61 (12.30)	62.29	31.60	97.08	52.15	71.46
재무관리지식 (0점~100점)	68.96 (14.77)	69.46	33.40	100.00	56.48	82.04
재무관리기능 (0점~100점)	57.86 (13.65)	56.75	7.32	98.71	50.35	66.96
재무관리역량 총점 (0점~100점)	63.14 (9.75)	62.60	37.93	92.99	55.20	70.24

〈표 6〉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영역별 비교

하위영역 \ 구성요인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하위영역별 역량점수
수입과 지출의 관리	① 71.95 (15.44)	74.72 (18.34)	59.64 (15.36)	65.53 (11.46)
	② 75.00	71.43	58.33	65.12
	③ 75.00	85.71	54.17	60.47
신용과 부채관리	60.80 (18.54)	72.10 (21.66)	58.49 (14.42)	61.29 (11.15)
	62.50	77.78	56.25	59.65
	62.50	88.89	53.13	56.14
저축과 투자	63.18 (16.71)	66.02 (18.23)	57.27 (15.61)	60.64 (11.27)
	62.50	70.00	57.14	59.26
	62.50	60.00	50.00	53.70
위험관리와 보험	60.14 (14.69)	68.83 (23.45)	58.58 (14.97)	60.09 (10.94)
	60.00	75.00	58.33	60.42
	55.00	75.00	50.00	54.17
노후설계	55.29 (21.27)	63.43 (19.86)	55.06 (16.64)	56.61 (12.20)
	50.00	71.43	54.17	56.41
	50.00	71.43	50.00	53.85
금융시장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64.29 (13.06)	68.68 (21.52)	58.14 (15.24)	61.51 (11.23)
	62.50	71.43	57.14	60.78
	62.50	57.14	53.57	56.86

① 평균(표준편차) / ② 중위수 / ③ 최빈값

도 점수는 그 다음이고 이상 점수가 가장 낮으며, 중위수 또한 지식 점수는 69.46점인데 비해 태도 점수는 62.29점, 이상 점수는 56.75점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재무관리에서 지식역량 수준에 비해 태도역량이나 기능역량 측면은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2008) 연구의 재무역량 부문의 경우 지식역량점수(50.54점)에 비해 실천

역량점수(60.43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연구에서는 재무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이 총 15개이고 이 중 실천역량에 관련된 문항이 6개였는데 이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재무 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본다” 혹은 “나는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하지 않는다” 등으로 규범성이 강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응답자들이 본인의 실제 행태와는 괴리가 있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개인의 재무관리역량 구성 요인별 백분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서, 100점 만점에 평균 63.14점을 나타내었으며 최소값 37.93점부터 최대값 92.99점에 이르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4.2.2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점수

〈표 6〉은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하위영역별 역량의 백분위 환산 점수를 나타낸다.²⁾

구성요인별로 보면, 6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지식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으면서 점수대가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재무관리태도, 지식, 기능 모든 요인에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노후설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다. 노후설계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은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과 저축과 투자 영역이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재무관리에 있어서 지식역량을 뒷받침할 만큼의 태도나 기능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가계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역량은 우수하지만 노후설계 영역과 보험 영역과 같은 미래의 위험관리에 해당되는 영역의 역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4.3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각 구성요인별 재무관리역량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특성이란 개인적 특성, 재무적 특성 및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로 대변되는 주관적 만족도를 일컫는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또 재무적 특성 및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및 역량총점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 때 재무적 특성 중의 단순지표와 주관적 만족도 변수는 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재무비율은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가의 여부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재무관리역량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3.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표 7〉은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집단별 재무관리역량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만 차이가 있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기능역량이 더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지식역량에만 차이가 있어 30대 이상인 경우에 지식역량이 높아졌다. 직업군별로는 학생일 경우 지식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모든 구성요인별 역량에 차이를 드러내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태도, 지식, 기능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가구원 수는 3인이거나 4인일 경우 태도역량과 지식역량이 높아졌고, 주거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월세 거주자가 기능역량에서 저조한 점수를 나타내어 그들의 실천능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무환경을 짐작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지식역량의 경우는 수도권 거주자와 중소도시/읍면부 거주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기능역량의 경우는 서울시 거주자와 광역시 거주자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서울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식역량은 상대적으로 저조

2) 이하 제시되는 재무관리역량 점수 관련 논의들은 모두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성별	남 (48.52)	62.52	69.86	59.18	63.85
	여 (51.48)	62.99	68.12	56.63	62.48
	t값	-0.23	1.91	3.03**	2.28*
연령	20대 (31.77)	61.83	65.38 a	57.67	61.63 a
	30대 (32.92)	62.13	69.47 b	57.79	63.13 ab
	40대 (25.84)	64.31	72.42 b	58.04	64.93 b
	50대 이상 (9.47)	62.19	69.78 b	58.32	63.43 ab
	F값	2.40	12.06***	0.08	5.79***
직업	봉급생활자 (66.41)	63.12	69.57 a	58.60	63.76 a
	자영업자 (9.19)	60.44	68.88 a	57.66	62.33 ab
	대학/대학원생 (9.19)	62.46	64.91 b	56.20	61.19 b
	무직(주부)/기타(15.22)	61.75	68.81 a	55.80	62.12 ab
	F값	1.66	2.82*	2.37	3.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17)	60.77 a	65.35 a	54.39 a	60.17 a
	전문대졸 이하 (18.47)	60.83 a	66.23 a	56.69 ab	61.25 a
	대졸 이하 (54.26)	63.38 ab	70.61 b	59.01 b	64.33 b
	대학원 이상 (11.10)	64.46 b	70.74 b	59.28 b	64.83 b
	F값	4.27**	8.67***	5.96***	12.00***
가구원 수	1인 (8.61)	61.76 ab	68.99 abc	56.43	62.39
	2인 (10.81)	59.47 a	66.78 ab	58.63	61.63
	3인 (27.46)	63.07 b	69.52 bc	57.87	63.49
	4인 (38.56)	63.49 b	70.41 c	57.66	63.85
	5인 이상 (14.55)	62.23 b	65.70 a	58.67	62.20
	F값	2.61*	3.57**	0.49	1.80
주거점유 형태	자가 (57.22)	62.28	68.89	58.64 a	63.27
	전세 (24.31)	62.90	68.76	57.68 a	63.11
	월세 (8.42)	61.46	68.88	53.37 b	61.23
	무상거주 (10.05)	64.70	69.95	57.65 a	64.10
	F값	1.46	0.18	3.88**	1.50
거주지역	서울시 (35.31)	62.70	68.38 ab	59.57 a	63.55
	서울 외 수도권(18.76)	63.12	69.90 bc	56.27 b	63.10
	광역시 (26.99)	61.32	66.97 a	58.02 ab	62.11
	중소도시/읍면 (18.95)	63.75	71.96 b	56.03 b	63.91
	F값	1.72	4.93**	4.05**	1.69
결혼상태	기혼 (53.97)	63.22	70.03	58.37	63.88
	미혼 (46.03)	61.88	67.71	57.27	62.29
	t값	1.75	2.55*	1.31	2.63**
전체 평균		62.61	68.96	57.86	63.14

* p<.05, ** p<.01, *** p<.001

한 반면 기능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이는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실행과 관련되는 기능적역량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외부적 요인들의 풍부함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개인이 재무관리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 기회가 다양하고 충분할 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지식역량 점수를 나타내어 재무관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실제 경험 및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가지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에서 모두 차이를 드러낸 개인적 특성은 학력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태도, 지식, 기능역량 모두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역량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짐작하게 하였다.

4.3.2 재무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개인의 재무적 특성은 그가 가진 재무관리역량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인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 및 총점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순지표와 함께 재무비율도 고찰하였는데, 이는 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있어 단일한 절대 액수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특성의 조합인 재무비율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다(최현자 외 2003)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재무비율로는 관련 선행연구들(김민정, 최현자 2007; 최현자 외 2003; 배미경 2001)을 참고로 하여 가계수지지표(월평균생활비/월평균소득), 비상자금지표(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금융자산/월평균소득), 부채부담지표(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투자성향지표(실물자산/총자산), 유동성지표(금융자산/총자산)가 선정되었다.

단순지표로서의 재무적 특성은 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집단을 나누었는데, 해당 재무적 특성의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1사분위 이하인 경우를 '하' 집단, 3사분위 이상인 경우를 '상' 집단, 그 사이인 경우를 '중' 집단이라 하였다. 단, 부채총액과 월부채상환액의 액수는 0원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0원인 사람들을 모두 '하' 집단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하위 50%를 '중' 집단으로, 상위 50%를 '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비율로서의 재무적 특성은 최현자 외(2003)에서 마련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준용하여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충족' 집단,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충족'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비율에서는 [평균±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극단치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재무비율에 한해서는 극단치를 제외한 99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8〉과 〈표 9〉는 개인의 재무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며, 이 중 〈표 8〉은 단순지표로서의 재무적 특성 수준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표 9〉는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나타낸다. 재무적 특성에 따라서도 재무관리역량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재무관리역량이 객관적 재무 복지와 연관이 있음을 예상하게 하였다.

〈표 8〉을 보면, 월소득이 높은 집단은 태도역량과 기능역량의 점수가 높았고 월생활비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월저축투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 지식, 기능

〈표 8〉 재무적 특성(단순지표)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월소득	상 (500만 이상) (24.75)	63.28 a	69.22	62.71 a	65.07 a
	중 (250만~500만) (45.28)	63.49 a	69.69	57.88 b	63.69 a
	하 (250만 이하) (29.96)	60.79 b	67.96	53.94 c	60.90 b
	F값	4.88**	1.28	29.91***	14.01***
월생활비	상 (250만 이상) (29.17)	64.32 a	71.41 a	60.59 a	65.44 a
	중 (100만~250만) (34.18)	62.95 a	70.25 a	57.80 b	63.67 b
	하 (100만 이하) (36.64)	60.99 b	66.06 b	55.84 b	60.97 c
	F값	6.21**	12.76***	10.11***	18.53***
월 저축 투자	상 (150만 이상) (30.06)	65.71 a	70.98 a	62.52 a	66.41 a
	중 (50만~150만) (31.43)	62.55 b	69.28 ab	58.33 b	63.39 b
	하 (50만 이하) (38.51)	60.30 c	67.37 b	53.92 c	60.53 c
	F값	17.04***	5.19**	36.45***	33.06***
금융자산	상 (1억3천만 이상) (25.08)	62.87	68.82	62.85 a	64.85 a
	중 (2천만~1억3천만) (47.56)	62.76	68.81	58.60 b	63.39 ab
	하 (2천만 이하) (27.36)	62.71	70.60	53.06 c	62.12 b
	F값	0.01	1.40	36.15***	4.99**
부동산	상 (3억2천만 이상) (25.47)	63.57	70.42	61.62 a	65.20 a
	중 (8천만~3억2천만) (49.05)	62.49	68.38	58.63 b	63.17 b
	하 (8천만 이하) (25.47)	62.27	68.77	55.26 c	62.10 b
	F값	0.67	1.31	11.73***	5.35**
부채총액	상 (3천만 이상) (23.92)	63.47	69.56	58.08 a	63.70
	중 (0~3천만) (19.52)	63.34	70.51	55.73 b	63.19
	하 (0) (56.56)	61.99	68.18	58.51 a	62.89
	F값	1.73	2.15	3.20*	0.60
월 부채 상환액	상 (50만 이상) (17.89)	62.76	69.44	58.10	63.43
	중 (0~50만) (25.93)	63.78	70.43	56.29	63.50
	하 (0) (56.17)	62.01	68.14	58.52	62.89
	F값	1.94	2.36	2.50	0.46

* p<.05, ** p<.01, *** p<.001

의 모든 역량 점수가 높았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집단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부채총액이 중간인 집단의 기능역량 수준이 낮았지만 월부채상환액에 따라서는 역량 점수에 차이가 없었

다. 재무관리역량의 총점은 부채 관련 특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단순지표들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재무관리역량 수준과 여유로운 재무상태 간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표 9〉 재무적 특성(재무비율)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항 목		집단구분(%)	태도 역량	지식 역량	기능 역량	역량총점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 [< 0.9]	충족(96.70)	62.64	69.08	58.05	63.26	
		미충족(3.30)	63.53	69.03	57.52	63.36	
		t값	0.40	-0.02	-0.22	0.06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 1]	충족(94.21)	62.86	69.42	58.65	63.64
			미충족(5.79)	62.24	68.10	52.59	60.98
			t값	-0.35	-0.63	-3.27**	-1.94
		금융자산/ 월평균소득 [> 1]	충족(91.81)	62.88	69.50	58.70	63.69
			미충족(8.19)	62.15	67.52	53.89	61.19
			t값	-0.49	-1.11	-3.04**	-2.14*
	부채부담지표	월부채상환액/ 월소득 [< 0.25]	충족(89.39)	62.63	68.74	58.14	63.17
			미충족(10.61)	62.41	70.55	56.79	63.25
			t값	-0.17	1.19	-0.98	0.08
	총부채/ 금융자산 [< 10]	충족(97.69)	62.54	68.92	58.38	63.28	
		미충족(2.31)	65.74	72.09	50.29	62.70	
		t값	1.21	0.99	-2.83**	-0.28	
	총부채/ 총자산 [< 0.8]	충족(97.36)	62.58	68.72	58.60	63.30	
		미충족(2.64)	57.84	65.86	53.36	59.02	
		t값	-1.85	-0.94	-1.91	-2.10*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 연간소득 [> 0.1]	충족(83.90)	63.16	69.78	58.63	63.86
			미충족(16.10)	60.14	65.41	54.90	60.15
			t값	-2.81**	-3.39***	-3.20**	-4.38***
	투자성향지표	실물자산/ 총자산 [< 0.9]	충족(81.87)	62.85	68.67	59.47	63.67
			미충족(18.13)	62.79	71.12	56.49	63.47
	t값	-0.05	1.74	-2.43*	-0.21		
유동성지표	금융자산/ 총자산 [> 0.1]	충족(81.54)	62.85	68.67	59.47	63.67	
		미충족(18.46)	63.09	71.21	56.48	63.59	
t값	0.20	1.83	-2.46*	-0.08			

※ [] 안은 최현자 외(2003)의 준거기준.

* p<.05, ** p<.01, *** p<.001

특히 월저축투자 수준에 따른 집단별로는 모든 역량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재무관리역량과 저축 및 투자행동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월저축투자,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액수에 따른 집단별로 기능역량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능역량의 우수성이 특히 자산 증식에 관련된 재무관리행동으로 차별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7가지 단순지표 중, 태도역량은 3개 특성에 따라, 지식역량은 2개 특성에 따

라, 기능역량은 6개 특성 집단에 따라, 역량총점은 5개 특성 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을 나타낸 <표 9>를 보면, 대체적으로 재무비율이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가계수지와 단기부채부담(월부채상환액/월소득)의 준거기준 충족여부에 따라서는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 총점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태도역량과 지식역량은 유일하게 저축성향지표(연간총저축액/연간소득)의 충족여부에 따라서만 차이가 존재하여,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태도역량과 지식역량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역량의 경우는 가계수지지표와 단기/장기 부채부담 지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비율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비상자금, 중기부채부담, 저축성향, 투자성향 및 유동성에 있어서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능역량 점수가 높아짐을 보였다. 특히 저축성향지표는 다른 재무비율이 가지지 못했던 태도와 지식역량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총점에서도 가장 나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역량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더라도 다른 재무비율에 비할 때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관리역량과 가장 관련성이 큰 변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분석에서 고려한 9가지 재무비율 중, 태도역량과 지식역량에 대해서는 1가지가, 기능역량에 대해서는 7가지가, 역량총점에 대해서는 3가지가 준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 재무적 특성의 수준별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재무관리역량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히 기능역

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재무상태가 탁월한 사람들의 기능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양질의 재무관리역량이 활발한 재무관리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무성과를 좋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천적 역량인 기능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3.3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앞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 특성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해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 즉 개인의 주관적인 재무적 복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는 어떠한 차이가 날 것인가도 궁금해진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수준 만족도 및 재정상태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는 하~중~상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만족도의 평균값은 3.76이었고 재정상태 만족도의 평균값은 3.55점으로 둘 다 중간 점수인 4점에 조금 못 미치는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중~하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에 따른 집단별로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활수준 만족도와 재정상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3개로 나누었다. 이 때 본인의 만족도를 1~3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하' 집단, 4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중' 집단, 5~7점으로 평가한 경우를 '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로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표 10〉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수준

항 목	집단구분 (%)	태도역량	지식역량	기능역량	역량총점
생활수준 만족도	상 (5~7점) (24.50)	65.57 a	69.99	64.39 a	66.65 a
	중 (4점) (40.19)	61.33 b	69.30	57.09 b	62.57 b
	하 (1~3점) (35.31)	62.00 b	67.87	54.22 c	61.36 b
	F값	10.35***	1.75	46.84***	24.50***
재정상태 만족도	상 (5~7점) (20.96)	64.00	69.51	64.36 a	65.96 a
	중 (4점) (33.78)	61.79	68.30	58.35 b	62.81 b
	하 (1~3점) (45.26)	62.57	69.20	54.49 c	62.09 b
	F값	2.19	0.56	42.57***	12.37***

한 결과가 〈표 10〉이다.

생활수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태도역량과 기능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더 높았고, 재정상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기능역량과 역량총점이 더 우수하였다. 즉 재무관리역량의 우수성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 간에도 어떠한 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무관리역량의 세 가지 구성요인 중 기능역량 점수는 두 가지 주관적 만족도 모두에 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세 집단 간 차이도 분명하였다.

이상 재무적 특성 및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위 연구결과들을 볼 때, 태도, 지식, 기능역량 중에서 기능역량이 객관적 재무상태나 주관적 재무적 복지 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부터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과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복지와 연관성은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기능역량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태도 및 지식과의 연관성보다 기능과의 연관성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태도와 지식 간의 상호작용성과 기능역량의 실천적 성격에 기인한다.

소비자행동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소비자의 지식은 그 자체로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 보다는 내면적 요소인 태도 요인과 결합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며(서은숙, 장운옥 2008; Mandell and Klein 2007; 이옥순, 김영남 2005; 홍성희 외 2004; 김인숙 2002; 박운아, 이기춘 1999; 황덕순 외 1999), 소비자의 태도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행동 변화에 반영된다(민현선, 이기춘 1999; Ostman and Parker 1987; Scott and Willits 1994; Haney 1991). 요컨대 소비자의 지식은 그 자체로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 보다는 내면적 요소인 태도 요인과 결합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며, 소비자의 태도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행동 변화에 반영된다. 즉 태도와 지식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식의 연관성이 기능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역량이란 실천적 역량으로서 본 연구에서의 기능역량 척도는 소비자의 기술적 행동 능력에 관한 것이다. 즉 재무관리에 관련된 여러 기

술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역량 척도는 실제 재무관리행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재무관리행동과 그 성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실천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최현자, 김정현(2010)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태도나 지식 수준은 일반소비자와 차이가 없으나 재무관리행동의 부족이 금융채무불이행과 연관이 있다고 규명한 것이나, 김영숙, 김여진(2006)의 웰빙상품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구매 후 만족도에는 태도와 기능 요인이, 불평행동에는 기능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결과들이 행동에 대한 기능 요인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역량 총점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14점을 나타내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성요인별로는 지식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역량 점수가 가장 낮아 실천적 역량의 부족이 입증되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영역의 역량 점수가 가장 높았고 노후설계 및 위험관리에 관련된 역량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즉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 수준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실천적 영역에서의 역량 부족이 재무

적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러 하위영역 중 은퇴설계와 위험관리 및 저축과 투자 등의 영역에서 역량 점수가 저조한 경향을 보여, 우리 소비자들에게 재무관리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구성요인별 역량 점수 및 역량총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무적 정보 환경이 풍족하고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며 학습능력이 갖추어 진 사람들이 재무관리역량을 잘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점수를 분석한 결과, 태도나 지식 등 인지적 측면의 역량은 서울의 수도권과 중소도시/읍면부 거주자가 우수한 점수를 나타낸 반면, 기능역량은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재무관리역량의 요인 중 실행과 관련되는 기능적 역량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외부적 요인들의 풍부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개인이 재무관리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 기회가 다양하고 충분할 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 재무적 특성과 재무관리역량 수준 간 관계를 고찰한 결과,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투자를 많이 할수록, 저축성향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태도, 지식, 기능역량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금융자산 및 부동산이 많을수록, 소득이나 생활비 대비 금융자산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역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리고 투자성향지표와 유동성지표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기능역량이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생활비나 부채총액도 많을수록 재무

관리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계수지나 부채부담 근거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는 재무관리역량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역량이 우수한 사람들은 소득 및 자산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중~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도 점수에 따라 재무관리역량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서 객관적·주관적 재무적 특성이 더 나은 사람들이 재무관리역량 수준도 더 우수하였다.

다섯째,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에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구성요인은 기능역량이었다. 즉 소비자의 재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역량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증진을 위한 정책 고안이나 재무관리교육시에 실천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둔다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역량에 비해 기능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재무관리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실천

적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재무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재무관리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히 노후설계, 위험관리,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영역에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은 소비자가 실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능숙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역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재무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구성요인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능역량은 다양한 경험과 정보에의 접근성이 좌우하는 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재무관리 실천 역량인 기능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관리를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원 및 인프라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무관리역량의 수준과 재무적 특성 및 주관적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역량이 우수할수록 재무적 특성과 주관적 만족도도 따라서 우수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소비자들의 재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국민의 재무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에 있어서 재무관리역량의 구성요인 중 기능적 요인이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천적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무관리의 실천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국의 Child Trust Fund처럼

어린 시절부터 의무적으로 자산관리를 경험하게 하는 등의 방법은 기능적 요인의 촉진을 통한 재무관리역량 증진의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을 분석한 본 연구는 소비자 측면, 정책적 측면, 소비자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정책입안자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의 현주소를 보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로 국민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안 작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무관리역량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인 자료의 축적을 통한 재무 복지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즉 본 연구는 재무관리역량의 측정과 소비자의 재무관리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을 터줌으로써 국민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와 소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소비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즉 역량있는 금융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논문접수일: 2011. 06. 28〉

〈1차수정본접수일: 2012. 01. 31〉

〈2차수정본접수일: 2012. 03. 14〉

〈개계확정일: 2012. 03. 15〉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2008),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보도자료.
- 김경자, 이기춘(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53-66.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순미, 김연정(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 김영숙, 김여진(2006), "신세대소비자의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자능력과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 **2006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겨울학술대회 자료집**, 61-74.
- 김인숙(2002),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청주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49-262.
-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현, 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운아, 이기춘(1999),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배순영, 천현진(2011),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정책연구 10-07, 한국소비자원.
- 서은숙, 장운옥(2008),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대한 태도 및 소비가치가 합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41-257.
-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

- 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손상희, 김경자, 나종연, 최신애(2010), "녹색소비역량의 측정 지표 개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용역보고서**.
- 송순영(2010), 녹색소비역량 평가 조사, 정책연구 10-13, 한국소비자원.
- 이기춘(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정순희(2009), "소비자의 에너지역량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85-97.
- 이옥순, 김영남(2005), "중학생의 식생활 관련 환경지식과 환경의식 및 환경친화적 식생활 행동,"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49-60.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최현자, 김정현(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 일반소비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21(3), 83-105.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홍성희, 이경희, 광인숙(2004), "도시주부의 환경지식과 자원절약 태도가 자원절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9), 67-83.
- 황덕순, 김미라, 홍은실(1999), "주부의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31-14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Ajzen, Icek(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Bettman, James R.(1979),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MA: Addison-Wesley.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Consumer Research Series, 37.
- Fishbein, Martin and Icek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Haney, Paul(1991), *Consumer Competencies: Critical Issues for the 'pos' National Coalition for Consumer Educati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year 2000: Change and Implementation*.
- JumpStart Coalition(2007),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3rd Edition.
- Mandell, Lewis. and Linda S. Klein(2007), "Motivation and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ervices Review*, 16, 106-116.
- McClelland, David C.(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Mirabile, Richard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Nunnally, Jum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 Summary of the Final Report*, OECD Press.
- Ostman, Ronald E. and Jill L. Parker(1987), "Impact of Education, Age, Newspapers, and Television on Environmental Knowledge, Concerns, and Behaviors,"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9(1), 3-9.
- Parrotta, Jodi L. and Phyllis J. Johnson(1998),

-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5.
- Schultz, P. Wesley(2002), Knowledge, Information, and Household Recycling: Examining the Knowledge-Deficit Model of Behavior Change, in *New Tool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Information, and Voluntary Measur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67-82.
- Scott, David and Fern K. Willits(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77-101.
- Spencer, Lyle M. and Signe M. Spencer(1993), *Competence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Titus, Patricia M., Alyce M. Fanslow and Tahira K. Hira(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Jung-Hyun Kim · Hyuncha Cho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various characteristics.

To measure financial competenc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previous study was us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nd 1,045 subjects, who were managing their own financial lives and aged 20 and over, were select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was not satisfactory. They scored 63.14 of 100 points on average. To be detailed, the highest score came from the knowledge component and the lowest point was obtained in the skill component, which indicates that they do not tend to make the use of their knowledge. As for the sub-categories, they showed the highest quality in managing their income and spending, while recording the lowest point in retirement planning and risk management.

Second,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financial competency found that consumers who were older-aged, male, with higher education, having job obtained higher scores in each component and total scores. By the location of residence, the scores for cognitive components such as the attitude and knowledge were shown higher among people living in small and mid-size city areas, while the point for the financial skills was recorded higher among people from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ird, the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showed that the scores for the attitude, knowledge and skills were higher when living expenses are higher, the amount of savings and investment is

Jung-Hyun Kim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cha Choe / Profess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more, and the standard of propensity to save is met. Particularly, the financial skill was higher when the people own more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their financial assets meet certain requirements compared knowledge income and living expenses, their total debt amount knowledge financial assets meet certain requirement, and the debt investment tend to be the liquidity indices meet certain levels.

Fourth, the satisfaction of Korean consumers with their living standards and financial circumstances were found to range from moderate to low. The satisfaction scores were also related to their financial competency and people with advanced financi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er competency to managing their financial affairs.

Fifth, as for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it was the skill component that was the most closely related to consumer financial welfare. As developing the functional skill will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help improve the welfare, focusing on making people act on real life will help when educating consumers on financial management.

Thes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guidance for policy-making and consumer educa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nd enhance their financial welfare, and provide the foundation to produce sound, responsible and competent consumers in financial market.

Key words: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Financial Management Knowledge, Financial Management Skill,
Pers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Satisfaction